

노벨의학상 우리에게는 꿈인가?



글·이상섭
후생신보 편집국장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벨상.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벨상은 우리의 꿈이었다. 노벨상을 타야 선진국 수준에 다가갈수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온나라가 축제분위기에 젖어들었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거리거리엔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마치 전부를 얻은 것 처럼 환호했다.

지금은 일단락됐지만, 노벨평화상이 치밀한 로비와 뒷거래에 의한 것이었다는 구속된 로비스트 최규선씨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의

도마위에 오른 노벨상의 권위는 흠집이 났다.

노벨위원회 군나르 베르예 위원장은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면 더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밝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 국민이해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로 58%인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과학자를 희망하는 자녀가 있을 때의 느

낌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아들·딸 구별없이 응답자의 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들일 경우 56.4%, 딸은 51.4%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해 직업으로서의 과학자에 대해 선호도가 비교적 낮았다.

또 과학기술이 삶을 안락하게 만들고(93%) 더 많은 기회를 줄 것(79%)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복제동물 생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1%와 47.9%로 나타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세포주기 과정에 '검문소' 개념을 도입한 공로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리 하트웰 박사(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미국)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다.

검문소란 세포주기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 검문소에 결함이 생기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부인과 함께 인터뷰에 응한 그는 인류를 위협하는 암의 치료기술은 향후 10년내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며, 치료분야의 발전보다는 조기진단 기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용해서 혈청에서 어떤 암의 발생을 예측해 주는 단백질 혹은 DNA를 검출하는 조기진단법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과학자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연구실의 불을 환희 밝히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생명과학의 뿌리를 찾아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들이 있기에 안심이 된다.

노벨상을 타내기 위해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수상의 영광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지난 5월 '생명·사회 그리고 미래-한국의학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의협 학술대회에서 우수한국인 의과학자 20명을 선정, 발표한 적이 있다.

선정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2010년까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신선한 아이디어 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학계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자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토네가와 스스무가 면역학 분야에서 '항체의 다양성을 유전자 단계에서 설명한 공로'로 지난 87년 노벨생리학상을 받았다. 벌써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젠 한국인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때다.  2002